

김양식 인도박물관장은?



1986년 인도 발미키 페스티벌 때 열린 세계시인대회의 한국대표로 참석한 김양식 관장이 인도 대통령과 인사 나누는 모습.

“내 詩는 세월에 흐트러진 마음 씻어낸 흔적들”

‘김양식 관장’ B1면에서 계속

불교는 ‘내 영혼과 시심의 안식처’라고 밝히는 김 관장에게 시세계와 불교, 인생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시 중에 불교가 반영된 대표적 작품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삶의 단상처럼 2행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시집 제목이 <하늘 먼 자락에 구름 날리면(2009)>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두 줄로 쓴 이행시들 100여 편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와 발원으로 뽑아낸 정수라 할 수 있죠. 순간 순간을 머물게 한 사유의 편린들을 두 줄의 글귀로 남겨 온 것을 한자리에 모아 봤습니다. 마치 강가 보얀 모래밭에 남겨 놓은 물새들의 발자국 처럼 말이죠.”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적인 분위기가 지극하고, 심금을 울리는 이행시라고 반응해 주었습니다. 메시지는 불교사상의 함축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세월에 밀고 밀리며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과 정신을 산골짜기 맑은 샘물로 씻어 청정으로 향하고자 한 흔적들이죠.”

▲그런 시들을 쓴 계기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등 종교 생활 때문이었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불교 속에서 전하는 가르침은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사는 건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지요. 당시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 다 털어버리고 정말 맑게 살고 싶다는 발원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스쳐오는 생각들이 깔끔하고 고귀했기에 저 자신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불교사 전하는 가르침과 힌두교 경전, 특히 리그베다 같은 경전과 하나 되는 감동에 스스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 울림은 시의 멘토인 타고르의 ‘범아일여’ 사상과도 일맥상통 한가요?

“그렇습니다. 범아일여 사상은 바로 리그베다에서 나왔습니다. 타고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엔 미흡하고, 저의 연구도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를 연구하는 동안 마음 깊숙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도는 언제부터 본격 방문 했는지요?

“1975년도 인도서 열린 ‘아세아 시인대회’에 조병화 시인과 함께 참가한 것이 인



후반기 시 주제는 불교 기도와 발원으로 뽑은 정수 사유와 편린 두 줄 시어로 불교사상의 함축 메시지

45세 동국대 인철과 입학 1975년 인도 첫 방문 후 인도관련 공부 필요성 느껴 대학원서 우파니샤드 연구 한국 최초의 타고르 관련논문

2011년 인도 박물관 개원 70세까지 30여 회 인도 답사 40년간 3천여 점 유물 수집

타고르 국제대학 불사 진력 한국간 건립 위해 MOU체결 200평 규모 도서관 건축 예정

김양식 관장에게 불교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숙명처럼 따라야 하는 큰 스승”

도의 첫 방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어려서부터 동경한 그 땅을 마흔이 넘어서 방문한 감동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체류하는 열흘 동안 불편하더라도 인도 현지인처럼 생활했지요. 현지의 훌륭한 학자, 작가, 시인들 틈바구니서 지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인도인들과 똑같이 손으로 밥을 먹고 지내니 그곳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해 주셨지요. 그리고 유명 여류시인이 내 시를 언급했을 때에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인도를 보고 받은 인상은 어떠셨나요?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점. 아직도 현대 문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생각과 생활이 감명 깊었습니다. 조금만 맛보면 인도를 알 수 없단 생각이 한국에 오자마자 당시 유일한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입학해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타고르 작품에 녹아있는 우파니샤드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어 연구된 최초의 타고르 석사논문이라고 합니다.”

▲인도서 활발한 수집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에 인도를 알리려고 생각한 계기는?

“타고르에 관한 책을 꾸준히 탐독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인도에 눈 뿜었습니다. 인도 마을을 둘러보면 그 자체가 박물관처럼 보여요.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도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만 인식합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신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크고 방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거기에 매료 됐지요.”

▲인도 박물관이라는 숙원 사업을 이루셨는데 40여 년 간 컬렉션의 수는 어느 정도이며,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컬렉션 한 수는 약 3천 여점이 됩니다. 타고르는 인도 콜카타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고향 휴마

다 위에 학교를 만들었지요. 당시 그는 교실이라는 교육환경을 감옥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움직이지 말라고 야단치는 감옥말이죠. 그래서 비스바 바라티(숲속의 학교)를 만들었지요. 누룽지떡에 작은 칠판을 깔고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나무 밑에서 받는 교육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수집으로 방향을 틀어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2011년 7월에 개관해 올해로 벌써 만 5년이 되는군요.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수집에 어려운 점도 많았을텐데,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나마 3~40년 전에는 수집품 값이 쌌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 더 힘들어졌지만 나에게 주어진 업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갔습니다. 수집하느라 먼길을 가면서 시간에 쫓겨 점심을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열정 하나만으로 버텼지요. 주로 회의와 시 낭송 등 문학행사에 초청돼 인도 여러 지역을 돌러 보는 와중에 수집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내 나이 70세까지 30여 회 정도 인도를 방문하며 수집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인생의 후반기 작품인 <하늘 먼자락에 구름 날리면>에 불교가 많이 투영됐다고 했는데, 인생을 많이 살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불교는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욕심을 내려 놓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더욱 와 닿더군요. 남들이 수집할 돈으로 재테크나 보석에 관심 갖다고 권했을때도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는 욕심이 없었어요. <범구경>과 특히 <임제록>이 주는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훌쩍데기 옷을 걸쳐도 수행자들이 열어나 행했을까 생각도 했지요. 불경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를 반성할 기회가 많아져 오히려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되더군요.”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음반도 내서 화제가 되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시를 쓰게 된 계기는요?

“수요집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시를 지어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출력해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할머니들께 막말 했던 도쿄 도지사에게도 일본어로 직접 편지도 썼어요. 물론 답장은 없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내 종교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이의 종교도 존중하라고 했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마땅히 남의 종교도 존중해야 합니다. 과거 일부 개신교인들이 불상을 부순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도사람들은 힌두교임에도 절에서 향을 피우고 경건하게 절을 올립니다. 불교와 다 같은 뿌리라고 말하는 인도인들의 이야기에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근, 타고르 국제대학에 한국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 학관, 일본학관은 이미 있는데 한국관이 없다는 사실에 열불이 나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5억여원을 기부해 200평 규모의 멀티정보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산티아게탄(평화의 마을)에 있는 비슈바 바라티(타고르 국제대학, ‘숲속의 학교’라는 뜻)에는 한국인 유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불사를 마무리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숙명적인 큰 스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단지 종교의 대상이 아닌, 뜻을 따를 수 있는 큰 스승이죠.”

1931년 서울서 태어난 김양식 인도박물관 관장은 이화여자대 영문과와 동국대 대학원 인도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9년 월간문학 ‘제 1회 신인상’ 시부문 당선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정음후사> <초이시집> <새들의 해돋이> <서초동 참새> <풀잎이 되어 풀잎이 되어> <쓸쓸하지 않은 사람들> <만남의 향기> <하늘 먼 자락에 구름 날리면>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86 한국현대시인상> <세계시인대회상> <세계무즈상> <제 3회 이화문학상> <한국문학상> 등이 있다. 특히 김 관장은 인도 문화의 이해와 전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인도 정부로부터 최고 권위의 시민상인 ‘파드마 슈리상’을 받았다. 또한 김 관장은 1981년 한국인도문화연구회를 창설했으며, 타고르의 저서를 포함한 다수의 인도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국내 대표적인 1세대 발레리나인 김혜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의 친언니이기도 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람 양성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재진입, 8년 연속 ACE 대학 (2011~2018)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우수 대학 (2015~)

교육부 대학평가인정 획득(2013~2017) • 신입생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설치 운영
• ‘파라미터 칼리지’에서 인성과 역량 모두 갖춘 ‘참사람’ 인재 양성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2015~)
• 동국엘리트정착 신입생 선발 정규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지원, 매월 학업장려금 지급, 해외연수 파견 등 혜택

자비로운 마음, 평화로운 세상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서기 2016년 5월 14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부처님오신날에 만나는 전주한지의美

제9회 천년전주한지 전통 등 만들기 대회

- 일시 : 2016년 5월 14일(토) 오전 11시~오후 4시
- 장소 : 참좋은우리절 앞마당(전주시 삼천동)
- 참가부문 : 학생부(초,중,등), 다문화가족부, 장애우부, 일반부(2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
- 주제 : 자유선택
- 참가비 : 무료
- 시상내역 : 전라북도지사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시장상, 라울라의 착한벗들상
- 심사결과 : 대회당일 현장발표
- 접수기간 : 2016년 4월 20일~5월 10일(현장접수가능)
- 접수처 : 063) 236-6633

※ 참가비용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팀에게는 다과, 음료구매권을 드립니다.(팀당 1매)

제2회 행복한 다꿈어울림 문화축제 한마당

- 일시 : 2016년 5월 14일(토) 오전 11시~오후 4시
- 참가부문 : 노래, 무용, 악기연주 및 기타 장기지랑
- 참가자격 : 장기를 자랑하고픈 모든 이(총 10개팀)
※ 단체참가팀에게는 가산점 부과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 부상내역 : 최우수상(1팀) : 20만원
우수상(1팀) : 10만원
장려상(2팀) : 5만원
※ 참가팀에게는 별도의 경품 증정
- 신청기간 : 4월 10일 ~ 5월 10일
- 신청방법 : 소정양식 1부

공동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우리절신행연합회, 라울라의 착한벗들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우리절,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잡

접수처 | 063) 236-6633, 236-0602